

## 제4차 아시아 응급의료 학술대회

“한국을 넘어 다른 아시아 지역 응급의료 발전 기여 목표”



제 4차 아시아 응급의료 학술대회(The 4th Asian EMS Conference)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주최측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서로 다른 응급의료의 경험과 학문 성과를 교환해 한국 응급의학계는 물론 타 아시아 지역 응급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총 참가국 29개국의 1717명(국내 1434명, 해외 283명)이 참여해 ‘아시아 국제 협력을 통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발전(Pan-Asian Collaboration for Excellence in Pre-hospital Care)’을 주제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응급의료 발전 경

험 공유 및 개발 전략 ▲심정지 생존을 향상 위한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확산 ▲구급서비스 품질향상 및 개선 경험 공유 및 발전방향 ▲병원 전 응급의료 인력 양성 방안 ▲저개발 아시아 국가 응급의료 개방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美에일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이자 전 미국 EMS의사협회장인 데이비드 콘(David Cone) 교수와 알타바마대 의대 응급의학과 헨리 왕(Henry Wang) 교수 및 코펜하겐 EMS 최고경영자인 코펜하겐대 의대 프레디 리퍼트(Freddy Lippert) 교수 등 세계적인 전문가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8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심정지 생존을 향상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헨리 왕 교수는 “미국도 평균 심정지 생존율이 17%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3% 이하인 지역도 있다”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커뮤니티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프레디 립퍼트 교수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심정지 환자의 평균 생존율이 2015년 기준 5% 정도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3~4%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기준 5% 미만의 소생률을 보이고 있다.

신상도 EMS ASIA 2016 조직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장)은 “지역 간 격차도 문제”라며 “자동제세동기의 직접 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비드 콘 교수는 “미국의 경우 환자의 70~75% 정도가 집에서 심정지가 오는데 집에

는 제세동기를 놓지 않는다”며 “정부기관이나 헬스장 외 환자가 발생하는 곳에 제세동기를 두는 등 매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외 저개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데이비드 콘 교수는 “일부 잘 사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70년대를 보는 것 같았다”며 “필리핀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반 이상 참여한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금지원법’의 만료 뒤 국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근 EMS ASIS 2016 회장(가천대길병원장)은 “그간 정부의 지원이 잘 된편으로 저비용 고효율이었다”면서도 “응급의료기금지원법이 올해 만료되면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엔 한시 입법이 아닌 영구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기 학술대회는 2년 뒤인 2018년 필리핀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김윤선 기자/MP저널